

보성군 예산 7천억 시대 연다

2회 추경 6천762억 확정...코로나 극복 우선 반영

민선 7기 현안·주민 숙원 등 민생안정 집중 편성

보성군이 올해 안에 예산 7천억원 시대를 열 전망이다. 보성군은 31일 “위축된 지역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제2회 추경을 실시하고 85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6천762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올해 말에는 보성군 예산 7천억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 별로는 일반회계가 785억원 (14.8%) 증가한 6천69억원, 특별회계는 69

억원 (11.1%) 증가한 693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극복·재해 대응 사업에 우선 반영됐으며 민선 7기 주요 현안과 주민 숙원사업을 반영하는 등 민생 안정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국민(하위 80%) 1인 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95억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4억원, 취약계층 한시

생계 지원 14억원,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1억원 등이다. 지역 경제 회복·민생 안정에는 지역 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20억원, 희망일자리사업 3억원, 마을기업(마을공동체) 육성 2억5천만원, 자활사업 6억6천만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10억원 등이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숙원사업 예산은 신용동산 종합개발 43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32억원, 미력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11억원, 주민참여 사업 45억원 등 군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예산을 집중 반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민선 7기 주요 현안 사업인 보성·별교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46억원, 군학항 어촌뉴딜 300 24억원, 여자만 별교곶별 해양테마공원 조성 12억원, 도시재생인정사업 20억원, 일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20억원, 별교 생태공원 축구장 인프라 구축 10억원 등 기존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김철우 군수는 “지금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지역 경기 회복,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한 만큼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인기자



여수 충무동, 가을꽃 7천200여본 식재
여수시 충무동은 최근 직원,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자활근로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도로변 마이가 화분과 자투리땅 7개소 1천120㎡에 메리골드, 베고니아, 사루비아 등 가을꽃 7천200여본을 식재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사랑상품권’ 오늘부터 10% 특별할인

지류형 205억·카드형 10억 등 총 215억 규모

여수시는 31일 “9월 1일부터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해 하반기 여수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할인 판매 목표액은 지류형

205억원, 섬섬여수페이(카드형) 10억원 등 총 215억원 규모다. 상품권 구매는 판매 상품권 대행 운영 금융기관 60개소에서 할 수 있다. 구매 한도는 지류형과 카드형을 합산해 1인당 월 50만원이며 현금 결제 시

에만 할인된다. 법인은 현행대로 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2% 할인 받을 수 있다. 대행운영 금융기관 현황은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품권은 여수시 판매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전통시장 등 6천400여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형업소, 유흥업

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가맹점은 여수시 홈페이지나 ‘여수사랑상품권가맹점’ 앱(App), 상품권 뒤편 QR코드를 통해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하반기 특별 할인 판매가 지역 밀착형 소비를 이끌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기자

고흥군, 결핵 무료 이동검진

고흥군은 31일 “결핵 조기 발견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결핵 감염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근 찾아가는 무

료 이동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결핵 발생률이 높고 유행 파급력이 큰 어르신 450여명(3개 면)을 대상으로 마 유흥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동 검진

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연계해 이동검진 차량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기기를 갖춰 방문 검진하고 실시간 원격판독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의심 소견자의 경우 당일 객담 채취까지 실시하는 등 신속 진단으로 어르신들

의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결핵균을 치료할 계획이다. 또한 검진 시 결핵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생활 속 안전 관리와 결핵 감염경로·증상, 진단·치료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에도 노력했다. /고흥=김두성기자

광양시, 내년 법인택시 3대 감차

보상금 4천500만원...경영 악화 등 해소 기대

광양시는 31일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법인택시 3대를 감차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차보상금은 법인택시 1대 당 4천500만원이다. 택시 감차사업은 택시 과잉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으로 택시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택시업계 경영 악화, 종사자 소득 감소 등을 해소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4차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양시는 택시 면허대수 410대로 인구수 대비 과잉 공급 상태로 향후 119대를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광양시 택시 감차위원회는 앞으로도 택시 감차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

심을 갖고 시와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향후 추진될 택시 감차사업은 이번 택시 감차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감차 계획을 수립·고시하고 2022년 감차 보상사업계획을 공고 후 대상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시는 최종 확정된 택시 감차 대상자에게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의 인센티브 예산이 포함된 감차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양군 교통과장은 “과거에 감차위원회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했음에도 안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에 안전의 결이 이뤄져 광양시가 2022년 택시 감차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조기 검진으로 치매 예방하세요”

곡성군, 1만4천643세대 안내문 발송

곡성군은 31일 “주민들의 치매 검진 독려를 위해 전 세대(1만4천643세대)에 치매 조기 검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고령자 치매 예방을 위한 기억력 검진 안내, 치매 예방에 좋은 운동, 건강 박스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곡성군은 안내문을 통해 주민들의 치매 예방 생활화와 조기 검진 참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치매를 조기 발견해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곡성군 치매안심센터는 해마다 증가하는 치매 환자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와 8

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에서 치매 무료 조기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면 군민 누구나 검진받을 수 있다. 인지 선별 검사를 통해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협약병원 전문의 진료를 통해 2차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게는 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치매로 진단받을 경우 연령, 진단, 치료,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월 3만원 범위 내의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곡성군은 치매 환자를 위한 상담 관리, 전담 코디네이터 1:1 매칭 관리, 인지 훈련 프로그램, 치매환자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곡성군치매안심센터 061-360-8982·8984) /곡성=이호산기자

화순군, 정부 합동평가 추진 상황 점검

부진 지표 개선책 마련·정성 지표 우수사례 발굴

화순군이 2022년 정부 합동평가 추진 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어 미흡한 지표의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화순군은 31일 “최근 김중갑 부군수 주재로 정부 합동평가 96개 평가 지표에 대한 상반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강구, 부서 간 협조 요청 등 실적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부진 지표 개선책 마련과 함께 정성 지표 우수사례 발굴에 힘쓰기로 했다. 올해 초 발굴한 20건의 정성 지표에

대한 스토리텔링, 계량화, 체계적 증빙 자료 관리, 전남도 담당 부서와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전남도 정성 지표 우수 사례에 화순군 사례가 많이 반영되도록 성과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9월 중 평가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지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각 평가 지표 별로 평가 의도에 맞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방법을 찾고 부서 간 협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이병철기자

장성 토지 (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010-6670-9800	당진신축 (원룸매매) ◆ 월수익 750만 ◆ 연수익 9천만 ◆ 매매13억 (용6억5천) ▶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향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 입주맞공사시작. 엘레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 ① 기초반,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실전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 (직업가능,수익가능) · 전문반무료제공 · 책상,컴퓨터제공,매주1회 물컨스터디 광주 광산구 신가동(아파트) ▶감정가 2억 →최저가 1억4천 (9/8) 서구 치평동(아파트) ▶감정가 1억6천 →최저가 1억1천 (9/14) 광산구 도산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최저가 2억3천 (9/16) 북구 문흥동(근린상가) ▶감정가 13억4천 →최저가 9억5천 (9/17) 북구 신용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9천 →최저가 2억 (9/17) 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감정가 18억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감정가 8억3천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14억9천 →최저가 6억6천 (9/28) 전남 화순군 도곡면(근린시설) ▶감정가 10억 →최저가 5억9천 (9/16) 화순군 백아면 (근린시설) ▶감정가 13억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가동(근린주택) ▶감정가 12억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황룡면 (공장) ▶감정가 68억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감정가2억7천 →최저가7천 (10/12) 시외 충남 홍성군 장곡면(근린주택) ▶감정가 6억3천 →최저가 2억1천 (9/14) 부안군 변산면(숙박시설) ▶감정가 4억 5천 →최저가 2억 2천 (9/27) 062-382-5500
---	---	--